『텬로력뎡』의 간행방식

A Bibliographic Study on Publication type of *TyeonRoRyeokDyeong*

오 용 섭 (Oh, Yong-Seob)*

◁ 목 차 ▷

1. 서 언
2. 『텬로력뎡』의 번역
 2.1 게일 부부
 2.2 이창직
3. 간행방식
 3.1 목판본
 3.2 신활자본
4. 삽화와 판각방식
 4.1 삽화가
 4.2 판각방식
5. 결 언
<참고문헌>

<초 록>

『텬로력뎡』이란 영국의 존 번연이 지은 『The Pilgrim's Progress』 제1부를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한 초판본 서명이다. 『텬로력뎡』은 1895년에 국내의 The Trilingual Press에서는 목판, 중국 상해의 인쇄소에서는 신활자본으로 간행되는 등 두 종류의 판본으로 유통되었다. 이렇게 『텬로력뎡』은 우리의 전통적인 인쇄방식과 서양의 인쇄방식을 함께 이용하여 완성된 작품이다. 또한 한국식 인물삽화 42점을 수록한 것은 우리의 출판인쇄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목판본과 일부 현전 목판 그리고 국내외에 전존하는 신활자본들을 살펴 『텬로력뎡』의 간행방식과 판본학적 정체성을 살폈다. 이 글을 통해 초판본 『텬로력뎡』 중에서 고가의 목판본은 외국인, 저가의 신활자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판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특이한 점은 한국식 삽화가 42점이나 수록되었고, 이 삽화가 배치된 목판은 반으로 절단한 다음 판각되었다는 점이다.

要語: 텬로력뎡, 텬로력정, 천로역정, 번연, 게일, 김준근, 이창직, 삼문출판사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u.ac.kr)
접수일: 2016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2016년 9월 13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23일

www.kci.go.kr

<ABSTRACT>

TyeonRoRyeokDyeong is the title of first edition translated Part I of John Bunyan's *Pilgrim's progress* into Korean by Gale couple. *TyeonRoRyeokDyeong* was published two type in 1895. The woodblock edition was printed on Korean paper by the Trilingual Press in Seoul and the new metal edition was printed on modern Chinese paper in Shang-hai.

These are classical work published by printing methods of Korean and the West. Both editions were illustrated with forty-two of charming line-drawings by a Wonsan artist, Kim Jun-geun. So far, we couldn't see so many Korean-style line-drawings inserted in a book in publishing history of Korea.

I inspected the woodblock and the woodblock edition besides the new metal edition of first edition, find out publication method and the identity of both editions. Both editions may be classed as the woodblock edition of high prices for foreigners and the new metal edition of low price for Koreans. There is another important fact that engraved line-drawings after cutting the woodblock in half.

Key words: *The Pilgrim's Progress*, *TyeonRoRyeokDyeong*, Bunyan, Gale, Kim Jun-geun, Lee Chang-jik, The Trilingual Press

www.kci.go.kr

1. 서 언

『텬로력뎡』이란 영국의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이 지은 『The Pilgrim's Progress』 제1부를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한 초판본 서명이다.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 부부와 우리 신앙인의 도움으로 간행을 본 이 책은 번연의 작품 중에서 제 1부(Part Ⅰ)만을 번역한 것이다. 초판본은 1895년에 간행되었고, 같은 계통의 판은 그 이후 『텬로력정』으로 서명을 변경하게 된다.[1] 그러므로 『텬로력뎡』은 초판본만을 일컫는 서명이 되는 셈이다.

처음부터 『텬로력뎡』은 국내의 The Trilingual Press[2]에서는 목판, 중국 상해의 인쇄소에서는 신활자본으로 간행되는 등 두 종류의 판본으로 유통되었다. 동일한 문헌을 시차를 두고 활자본과 목판본으로 간행하는 사례는 우리의 고인쇄사에서 더러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종류의 판본으로 간행한 사례는 이 시기에 와서야 볼 수 있는 새로운 간행방식이었다. 당시 이렇게 간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작업을 수행한 것인지는 자못 궁금하다. 또한 한국식 삽화 42점을 수록한 점 역시 우리의 출판인쇄사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텬로력뎡』은 우리의 전통적인 인쇄방식과 서양의 인쇄방식을 함께 이용하여 완성된 작품이었다. 물론 간행은 초기의 선교사들이 주도하였지만 우리의 출판인쇄사에서 볼 때 새로운 분기점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텬로력뎡』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당시 개신교 전도를 위해 간행된 이 판본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 『텬로력뎡』은 1895년에 목판과 신활자로 처음 간행된 두 판본의 서명을 일컫는다. 이 번역본은 초판본에 수록된 삽화 42점을 이용하여 1910년(2판), 1919년(3판), 1926년(4판)에 『텬로력정』이라는 서명으로 간행되었다. 『天路歷程』이라는 번역서명은 1853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번스(W. C. Burns, 1815~1868)가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처음 붙인 것이다.

2) 한철호, "배재학당 삼문출판사와 개화기 문화," 『텬로력뎡』 (서울: 동 박물관, 2010), 17. 한글, 한자, 영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활자를 갖추고 있음으로 해서 붙여졌다는 The Trilingual Press(삼문출판사)는 선교사들의 한국연구지인 『Korean Repository』, 『사민필지』 등의 교과서류, 『독립신문』 등의 신문 등을 간행하였다. 그래서 "기독교를 효율적으로 선교하는 차원을 넘어 한글을 널리 보급하고, 국민에게 근대적인 사상을 알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www.kci.go.kr

곧 초기에는 19세기 말기의 한글 정형을 볼 수 있다는 점[3]과 근대시기의 서양문학 번역 간행물[4]이라는 점 때문에 국어학과 번역문학 분야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에는 이 책에 수록된 삽화 42점 때문에 민속, 복식, 미술사, 신학 등의 분야에서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5]

그런데 지금까지 『텬로력뎡』의 간행에 대해서는 목판본과 신활자본의 존재[6]

---

3) 김동언, "『텬로력뎡』의 대본과 국어학적 특징," 『한국어학』 제29호(2005. 11), 11-12. 국어학적 가치에 대해 19세기 말의 언어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 황해도를 비롯한 북부의 방언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번역문의 초기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장인물간의 대화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 異本간의 대비적 고찰을 통해 언어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4)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98), 152-3.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에 있어서 역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번역문학의 효시는 『텬로력뎡』과 『유옥역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국적을 한국인으로 한정한다면 『유옥역전』이 단연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권정은, "삽입시와 삽화를 통해 본 『텬로력뎡』의 정체성," 『고전문학연구』 제45집(2014), 5. "『텬로력뎡』은 아라비안나이트의 국역본인 『유옥역전』이 소개되기 전까지 최초의 번역문학으로 주목을 받았다."
김병철 교수와 최근까지 이를 따른 권정은의 견해는 두 번역물의 刊寫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대비한 결론이다. 곧 김병철 교수는 "『유옥역전』은 서문을 쓴 시기가 1895년 7월이고, 『텬로력뎡』은 간행된 시기가 1895년이니 『유옥역전』이 먼저 번역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부언하고 있다. 그러나 『텬로력뎡』은 1895년에 간행되었지만 서문을 쓴 시기는 이보다 한 해 전인 1894년이다. 그렇다면 번역이 완료된 시점은 『텬로력뎡』이 『유옥역전』보다 오히려 최소 7개월이 앞선다.
오순방, "1894년 간 중문기독교소설의 전파와 번역 그리고 초기 한국의 문서선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喩道要旨』와 한역본 『인가귀도』를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제27집(2008), 225. "플랭클린 올링거(Franklin Ohlinger)가 번역하여 1894년에 간행한 『引家歸道』가 한국 최초의 기독교 번역소설이다." 오순방이 이렇게 판단한 기준은 『인가귀도』의 간행시기가 『텬로력뎡』에 한 해 앞선 1894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번역된 시기와 간행년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텬로력뎡』은 내국인인 이창직이 번역의 일정부분을 맡았고(2판부터 교열자로 등재), 수록된 삽화도 내국인인 김준근의 작품이며, 또 각각의 수요층에 부합하고자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류의 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므로 『유옥역전』이나 『인가귀도』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향후 『텬로력뎡』의 위상을 재정립할 때 이러한 요소들도 고려되길 바란다.

5) 박효은, "『텬로력뎡』 삽도로 읽는 구원의 길," 『텬로력뎡 삽도: 기산 김준근의 기독교미술』 (서울: 숭실대학교 동관, 2016), 58-66.
박정세, "게일(J. Gale)의 『텬로력뎡』과 김준근의 풍속삽도," 『신학논단』 60집(2010. 6), 63-91.

www.kci.go.kr

와 간략한 특징[7]에 대한 소개만 있었을 뿐 이 분야 연구의 기본이 되는 서지학적 조사는 거의 없었다. 현재『텬로력뎡』목판 69매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몇몇 목판은 당시 삽화의 판각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내외에 전하는 신활자본 역시 목판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목판본과 일부 목판 그리고 국내외에 전존하는 신활자본을 두루 살펴『텬로력뎡』의 간행방식과 판본학적 정체성을 살피고자 한다.

2.『텬로력뎡』의 번역

2.1 게일 부부

게일은 1888년 12월에 조선에 입국한 뒤 1891년부터는 원산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한 선교사였다.[8] 1927년에 떠날 때까지 정치적으로는 친일반러 입장 아래 번역이나 창작을 통해 조선을 서방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대한 넓은 지식과 깊은 애정을 갖고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은"[9]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한국학 관련 저술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10]『The Korean Repository』

6) 김동언, "『텬로력뎡』의 서지적 고찰,"『한남어문학』제20집(1995. 4), 42.
게일번역의 초판에 대해 두 판본은 "서문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고 하였다.

7) 장문석, "판식의 증언-『텬로력뎡』번역과 19세기말 조선어문의 전통들,"『대동문화연구』78권(2012. 6), 131-173.

8)『북한교회사진명감』(이찬영 편저, 총회북한교회재건위원회, 2000, 508)에 따르면, 게일이 선교하던 원산의 창전교회는 "관북지방에서 우리 손으로 지은 첫 교회당으로 1893년 10월에 창립"되었다고 한다.

9) 한규무, "게일(James S. Gale)의 한국 인식과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1898-1910년을 중심으로,"『한국기독교와 역사』제4호(1995. 12), 175.

10) 김봉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의 韓國學 著述活動에 관한 硏究,"『서지학연구』제3집(1988), 137-163.
이진숙, 이상현의 ""『게일유고』소재 한국고전 번역물(2)"(『열상고전연구』제48집(2015.

www.kci.go.kr

에 게재된 당시 17편의 번역시[11]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영역시가 최근에 공개되는 등 그는 한국을 이해하는 학자이자 문학가였다.[12] 그래서 윤치호도 그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13] 이렇게 그는 본연의 임무인 성서와 종교서적의 번역 외에도 한국문헌의 번역 등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시켰던 것이다.[14] 그래서 그를 "참으로 낭만적인 프로테스탄트"[15]라거나 "선교사이면서도 문학, 문화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교가 원주민의 문화와 융합하는데 초석을 놓은 진보적인 신학자"[16]로 보고 있다.

『텬로력뎡』을 번역하기 위한 노력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1891년 6월에 원산으로 이사한 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The Pilgrim's Progress』의 번역과 사전 편찬 등 다양한 작업을 하였다.[17] 그래서 1여년이 지난 1892년 8월에는 거의 절반을 번역해내었고, 서울의 기독교서회에 원고를 넘긴[18] 뒤에도

---

12), 473-516)에 따르면, 그의 홍부전 영역원고본이 발굴됨으로써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그의 새로운 견해도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11) 송민규, "『The Korean Repository』에 소개된 ODE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v.22(2013. 1), 209, 232.

12) 이상현, 이진숙은 "『朝鮮筆景』(Pen-picture of Old Korea, 1912) 소재 게일 영역시조의 창작연원과 내지인의 관점"(『우리文學硏究』 제44집(2014), 228)에서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토마스 피셔 희귀본 장서실에 있는 게일의 미간행 유물(「GALE, JAMES SCARTH PAPERS(MS/ Col/ 245」) 중의 영역시조 6수를 소개하였다.

13) 尹致昊, "大博識家," 『朝光』 제3권 4호(1937. 4), 96.
"께일博士는 상상以上의 博識家요 文學家입니다. … 只今까지 朝鮮에 온 西洋 宣敎師로는 그 才操와 博識에 있어서 氏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4) 안교성, "게일 목사의 신학사상의 특성과 그 유산,"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4집(2013), 219-251.

15) Richard Rutt(1925~2011),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Seoul: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1972), 83.
"He was that rarest of Christian types, the truly romantic protestant."

16) 유영익, "게일(James Scarth Gale)의 생애와 그의 선교 사업에 대한 연구," 『캐나다 연구』 제2집(1990), 142.

17) Richard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26.
"When at home, he worked at his desk every day from six in the morning to four in the afternoon. He translated Pilgrim's Progress, wrote his dictionary, and did sundry translations from Korean."

18) "My Dear Dr. Ellinwood." August 6, 1892. Gensan Korea (김인수 옮김, 『게일목사의

www.kci.go.kr

쉬지 않고 이 일을 지속하였다.[19] 그리고 간행 한 해전인 1894년에 서문을 쓴 점으로 보아 이때는 번역을 완료하고, 간행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게일보다 부인인 해리엣(Harriet E. Gibson)이 번역을 먼저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곧 "홀로 된 시절에 해리엣은 존 번연의 『The Pilgrim's Progress』 제1부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20]는 것이다. 해리엣은 남편인 헤론(John W. Heron)이 1890년 7월에 별세하자 1892년 4월에 게일과 재혼하였으므로 홀로된 기간은 1890년 7월 이후 1892년 4월 이전이다. 그렇다면 『The Pilgrim's Progress』 제1부의 번역은 해리엣이 1891년 전후에 먼저 시작하였고, 재혼 이후에는 게일이 계속 일을 진행하여 1892년 8월에는 절반 그리고 1894년 이전에 완역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2 이창직

러트는 『텬로력뎡』은 게일이 "이창직의 도움을 받아 일을 완수하였고, 그 책은 1895년에 서울에서 간행"[21]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게일의 번역 업무에 큰 도움을 준 대표적인 조선인은 李昌稙(1866~1936)이었다. 그러나 초판본에는 그의 역할에 대한 기록이나 표시가 없다. 이후 "텬로력정"[22]으로 서명을 바꾸어 1910년에

선교편지』 (서울: 쿰란, 2009) 원문189, 번역51.
"I am translating 『The Pilgrim's Progress』 beside some regular time daily in parts of the New Testament. Half of the first part of 『The Pilgrim's Progress』 is already in the hand of the Tract Society Seoul."

19) "My Dear Dr. Ellinwood." September 2, 1892. Gensan Korea (『게일목사의 선교편지』), 원문191, 번역53.
"Those, along with the first part of 『Pilgrim's Progress』, have kept my translation hours more than full."

20) Richard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27.
"During her widowhood Harriet had begun to translated Part I of John Bunyan's 『Pilgrim's progress』 into Korean."

21) Richard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27.
"Gale completed this with help of Yi Ch'angjik, and the book was published in Seoul by the presbyterian mission in 1895."

www.kci.go.kr

간행된 2판(신활자본)에는 권수제면 아래의 저자표시에서 “목ᄉᆞ 긔일 번역」 ᄉᆞ인 리챵직 교열”과 같이 이창직을 교열자로 새롭게 등재해 놓았다. 여기에서 이창직의 직함인 “사인”이란 “학식은 갖추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일컫는 “士人”의 한글 표기로 보인다.[23] 당시 이창직의 역할이 교열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창직이 처음 번역할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다가 2판 간행부터 교열을 맡은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이전부터 줄곧 교유하면서 지냈기 때문이다. 곧 게일은 1888년 12월에 입국한 뒤 두루 여행을 다녔는데, 1889년 3월 “해주지방 여행 중에 한학에 조예가 깊은 23세의 이창직을 만난”[24] 이후 원산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때도 그들은 함께 지냈고, 심지어 1897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영자전』을 간행할 때는 현지에서 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25] 그 이후에도 이창직은 “15년 동안 성서번역과 기독교 저술 모임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26]하는 등 게일의 국내 선교에 줄곧 도움을 주었던 신앙인이었다.

---

22) Richard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379에서 “『The Pilgrim's Progress』의 초판(1895), 2판(Presbyterian Mission, 1910), 3판(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ciety, 1919), 4판(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 1926)”까지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서명의 한글표기와 역자표기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편 4판은 권수제 아래의 저자표시는 2판과 동일하나 표제지에는 “譯述者 奇一博士”, 판권지에는 “譯述者 英國人 奇一 牧師”와 같이 저자 표시가 부기되어 있다.

23) 심부름꾼을 일컫는 “使人”이라는 단어도 있으나 이창직은 번역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士人”으로 보아야 한다.

24) Richard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14.
“One day, however, in a little house by the seashore, he met a young man, twenty-three years old, named Yi Ch'angjik. Yi was of good, though hardly noble, family from Haeju, not without means and well-educated in Chinese literature.”

25) Richard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29.
“In December 1895, the Gale family left Wŏnsan and went to Yokohama, taking Yi Ch'angjik with them. They lived there till March 1897, while Gale and Ch'angjik supervised the printing of dictionary.”

26) Gale, James Scarth,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Laymen Missionary Movement, 1909), 214.
“Mr. Yi Chang-jik, for fifteen years a Bible translator and Christian writer, followed these meetings with the keenest of interest.”

www.kci.go.kr

이와 같이 이창직은 게일의 우리말 선생이자[27] 『텬로력뎡』을 번역하던 원산시절에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만큼 그가 어떤 식으로든 번역 일을 도운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곧 우리말의 교열 업무와 함께 중국어역본을 참고하여[28] 번역의 완성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게일과 뜻을 함께하던 조선인 신앙인들 일부도 이 일을 도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텬로력뎡』의 번역은 게일 부부의 주도아래 이창직을 비롯한 몇몇 조선인들의 협력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3. 간행방식

『텬로력뎡』은 1895년에 간행된 두 판본이 전한다. 두 판본 모두 전통적인 판식으로 간행되었고, 선장으로 장책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지에 인쇄되어 2책으로 분책된 목판본은 능화문양의 황색표지에 붉은 실로 꿰매져 있는 등 우리의 전통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신활자본 1책은 보급형 중국종이를 사용하고, 장책이 견실하지 못하는 등 역시 당시 중국본의 특징을

27) 凡外生, "獻身과 活動으로 一貫한 奇一博士의 生活과 業績," 『朝光』 제3권 4호(1937. 4), 93-5. "그는 平壤서 朝鮮말을 대개 배우고 다시 黃海道 長淵에 가서 漢文을 잘하는 李昌稷氏를 만나, 博士는 비로소 朝鮮學에 對한 興味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博士는 朝鮮말을 배우고 다시 一面에 李氏에게서 朝鮮名賢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 그리고 博士는 餘假에 金瑗根, 李源模, 李昌稷 등 先生에게 朝鮮文學과 名賢들의 經典을 공부하고 硏究하였다고 한다."

28) 김동언은 "『텬로력뎡』의 대본과 국어학적 특징"(『한국어학』 29호(2005), 11)에서 "대본이 중국어역본일 가능성은 첫째, 서명이나 인명 지명이 중국어역본과 거의 같다는 점, 둘째 영어원본과 중국어역본은 직역에 가깝도록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는 점, 셋째, 시의 내용이 중국어역본과 같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텬로력뎡』은 영어원문보다는 중국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일본의 번역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성은은 더 구체적으로 "선교사 게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1호(2009), 202-208)에서 중국의 文言譯(1853년)과 官話譯(1872년)의 내용을 대비한 결과, 『텬로력뎡』은 "문언역과 한국어역이 일치한 경우도 몇 군데 있으나 인명과 지명의 번역어 및 번역문의 재편성에서 일관되게 관화역과 일치하므로 게일의 번역저본은 관화역을 주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www.kci.go.kr

보여주고 있다. 게일 연구자인 러트는 두 판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895년에 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서울에서 간행되었다. 그것은 감리교인 배재학당의 삼문출판사에서 한지에 찍은 목판본 두 책으로 전통적인 멋진 장정(선장본)이었다. 금속활자로 찍은 또 다른 판은 1893년 여름 게일이 전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상해에서 신식 중국종이에 인쇄되었다. 두 판본 모두 원산의 미술가인 김준근의 멋진 線畵가 있다."[29]

러트는 신활자본은 1893년 여름에 중국 상해에서 인쇄되었고, 이후 2년이 지난 1895년에 서울에서 목판본이 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활자본이 목판본보다 2년이나 먼저 간행되었다는 기록은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신활자본의 한글 표제지에는 목판본과 동일하게 1895년에 간행된 사실[30]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게일 역시 1895년 1월 5일에 원산에서 선교부 총무에게 보낸 편지에서 "1894년 마지막 주에 삽화 준비로 (화가와) 바쁘게 보내었다."[31]며 그때까지 삽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록할 삽화의 완성은 빨라도 1895년 초에 와서야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러트가 말한 "원산의 미술가인 김준근의 멋진 선화"가 수록된 판본은 1895년 이전에 간행될

---

29) Richard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27.
"During her widowhood Harriet had begun to translated Part I of John Bunyan's *Pilgrim's progress* into Korean. Gale completed this with help of Yi Ch'angjik, and the book was published in Seoul by the presbyterian mission in 1895. It was a woodblock edition printed on Korean paper by the Trilingual Press at the methodist Paejae School, in two handsome old-style Korean volumes. Another edition, in metal type, was printed on modern Chinese paper in Shang-hai, where Gale had taken the whole family for a visit in the summer of 1893. Both editions were illustrated with charming line-drawings by a Wŏnsan artist, Kim Chun'gŭn."

30) "구셰쥬강싱일쳔팔빅구십오년.", "대죠션긔국오빅스년을미."

31) "My Dear Dr. Ellinwood". January 5, 1895. Gensan Korea (김인수 옮김, 『게일목사의 선교편지』), 원문221, 번역81.
"This last week I have been busy with a native artist preparing illustrations for 『Pilgrim's Progress』, for the publication of which a considerable sum was subscribed by Pierson's Bible Class in Philadelphia. The illustrations are very good from a native point of view as the artist is a noted character in his special line."

www.kci.go.kr

수 없는 것이다.[32]

또한 목판본과 신활자본을 함께 판매하기 위한 홍보용 글이 『텬로력뎡』이 간행된 이듬해의 『The Korean Repository』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텬로력뎡』은 두 종류의 판이 있다. 한 종류는 조선종이에 찍은 목판본이다. 삽도가 있는 최고수준의 조선 (전래의) 형식이며, 두 책으로 장책되었다. 다른 종류는 작은 활자로 중국종이에 찍은 한 책으로 역시 삽도가 있다. 조선종이에 찍은 책은 소매(낱권)로는 1$, 도매(대량)로는 90c.이다. 중국종이에 찍은 책은 소매(낱권)로는 700cash, 도매(대량)로는 600cash이다."[33]

이 내용은 현전하는 두 판본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텬로력뎡』은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류의 판본으로 동시에 발행된 것이 분명하다.[34] 그리고 화폐단위를 판본에 따라 dollar와 cash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기에는 외국인 대상의 고급판인 목판본과 내국인 대상의 보급판인 신활자본으로 나누어 홍보 판매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35] 이 판본들은 당시 함께 유통되

---

32) 그런데 러트는 같은 책의 「BIBLIOGRAPHIES」("c. Books in Korea," 379)에서는 "The 1895 woodblock edition on Korean paper was printed … The same pictures appear in a metal type edition on Chinese paper with 67pages, printed in Shanghai."와 같이 신활자본의 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33) 『The Korean Repository』 Vol.3 No.2-・3 (February・-March), 1896. Advertisements.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Publishers. 『텬로력뎡』(The Pilgrim's Progress) "in two edition. One edition printed on Korean paper from blocks and in bound in two volumes, in the best Korean style, illustrated. The other is in one volume, do Chinese paper, in small type, also with illustrations."
Price, "Korean paper retail $1.00, wholesale 90c., Chineese paper, 700 cash, wholesale 600 cash."

34) 두 판본의 실제 인쇄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발행자는 조선성교서회(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이다.

35)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1월호 서평에서는 조선의 화폐단위인 nyang(냥), poun(푼)으로 가격을 표시하였으나 2-3월호 광고에서는 목판본은 $(달러)와 c.(센트), 신활자본은 cash(전)으로 표시해 놓았다(4월호부터는 nyang으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간행 초기에 목판본은 외국인 대상, 신활자본은 내국인 대상으로 홍보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소장의 목판본 2질 중에서 1질(청구기호: 고서 (1)/ 275.1/천로역/기1-2)은 1896년 12월 2일에 영국 성공회 선교사로 내한해 제2대 주교로 활동한 베레스포드 터너(Arthur Beresford Turner: 端雅德, 1862~1910)의 옛 소장본이다. 외국인이 목판

www.kci.go.kr

었기 때문에 구한말 프랑스공사관 통역관이었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은 이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서지기술을 해 놓았다.[36]

3789,『*Htyen ro ryek tyeng*』- Pilgrim's progress
Ⅰ. 4절판 2책. 한지. 총202장(21장은 삽화).[37]
큰 자의 한글서명. 존 번연 저술의 한국어 번역. 한국식으로 그려진 42점의 삽화. 1895년 조판.

Ⅱ. 1책. 대8절판. 물들인 중국 종이. 67+21장.
다른 판(별판).[38] 영어서명 부재(1895).

위의 여러 기록에서 보듯이『텬로력뎡』은 1895년에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류의 판본으로 간행되었고, 이 중에서 목판본은 서울, 신활자본은 중국 상해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홍보와 판매를 맡았던 발행자는 조선성교서회였던 것이다.[39]

한편 구한말 선교사들이 주도하여 간행한 문헌류 중에서『텬로력뎡』과 같이 목판본과 신활자본으로 동시에 간행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40] 다만

본을 입수한 사례이다.

36) Maurice Courant(1865~1935),『Supplément à la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Imprimerie Nationale, E. Leroux(1901), 82.
Protestantisme 3789,『*Htyen ro ryek tyeng*』- Pilgrim's progress.

37) 삽화 42점은 42장의 각 한쪽 면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21장은 삽화"라는 모리스 쿠랑의 記述은 부적합한 표현이다.

38) 국역본인『한국서지』(이희재 역, 일조각, 1997, 861)에는 "다른 재판본"으로 되어 있음.

39) 이후『텬로력뎡』은 동일한 삽화를 사용하면서 4판에 걸쳐 수정 보완되면서 간행되었다. 이 판본들은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혔고, 그들의 인생 진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게일의 기록이 있다. 곧 정치가인 "이승만, 이상재 등도 성경과 함께 열람하였고"(Gale, J. Scarth,『Korea in transition』, New York: Laymen'Missionary Movement, 1909, 182-3), "YMCA의 당시 총무도 이 책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다."(Gale, J. Scarth,『Christian Literature for Korea』, [ ]: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89-], 5)는 것이다.

40) 감리교 찬송가인『찬미가』의 초판본(1892)은 중국종이, 재판본(1895)은 한지에 각각 신활자를 사용하여 간행되었다(Maurice Courant,『Supplément à la Bibliographie Coréenne』(1901), 84(Protestantisme 3807. Tchan mi ka. Chan mi ka.).

www.kci.go.kr

1895년에 언더우드가 한지에 찍은 목판본(35센트)과 중국종이에 찍은 신활자본(20센트)으로 나누어 간행한 『영혼문답』이 있으나[41] 이것은 낱장의 인쇄물에 불과하다.

3.1 목판본

목판본[42]은 판매를 위한 홍보가 1896년 1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1895년 말에는 간행되었을 것이다. 2책으로 장책된 목판본은 영문표제지 1장, 한글표제지 1장, 서문 4장, 인명과 지명 해설 7장 그리고 본문 20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이한 점은 영문과 한글 표제지가 함께 있다는 점이다. 목판본 중에서 유일하게 신활자로 찍은 영문표제지에는 "The」 Pilgrim's Progress」 Translated by」 Mr. and Mrs. Jas. S. Gale.」 Printed at」 The Trilingual Press」 Seoul」 1895."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영문표제지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이 목판본은 게일부부의 번역으로 1895년에 서울의 The Trilingual Press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뒷면에는 "『텬로력뎡』은 번연의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여 피어슨 목사가 가르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주일학교교사 성경연구회의 지원으로 발행"[43]된 사실도 밝혀 놓았다.[44] 그래서 이 영문표제지의 앞뒤의 글을

41) Maurice Courant, 『Supplément à la Bibliographie Coréenne』 (1901), 80(Protestantisme 3778. 『Ryeng hon moun tap』.

42) 2책: 삽화, 사주쌍변, 반곽 21.7×16.1㎝, 유계, 반엽 11행20자, 내향3엽화문어미; 28.6×19.9㎝
표제(標題), 권수제, 판심제: 『텬로력뎡』
원서명: Pilgrim's progress
간기: 구셰주강싱일쳔팔빅구십오년 대죠션긔국오빅스년을미(1895)
서: 구셰주강싱일쳔팔빅구십스년(1984) 원산셩회긔일셔

43) The back of English Title Page, "This edition of Bunyan's Pilgrim's progress, in the Korean language, is published by the aid of the Sunday School Teachers' Bible Class, Philadelphia, Pennsylvania, U.S., taught by Rev. Arthur t. Pierson, D.D. At the two hundredth anniversary of Bunyan's death, in 1888, an offering was taken for this purpose and is now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this book, with the prayer that it may prove a Book of Brotherhood between the Christians of America and Korea."

www.kci.go.kr

통해, 목판본의 간행과 관련된 사실을 두루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글 표제지에는 서명과 함께 "구셰쥬강싱일쳔팔빅구십오년", "대죠션긔국오빅 스년을미" 등의 간행 시기만 있다. 그래서 을미년인 1895년에 간행된 사실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권수제인『텬로력뎡』에 이어 본문은 "권지샹"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권상이란 한글본의 卷次가 아니라 영문판 원본의 제 1부(Part Ⅰ)를 의미하는 것이다.[45] 그러므로 목판본은 제1부의 번역을 두 책으로 분책한 것이며, 제1책은 113장, 제2책은 102장으로 편성되어 있다.[46] 이 목판본은 "띄어쓰기나 단락 구분, 대화의 처리 장치도 없는 순 한글로만 표기된"[47] 번역본이다. 지명은 그 오른쪽에 두 줄, 인명은 그 오른쪽에 한 줄을 그어놓아 새로운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48] 이 책의 가치는 이전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 놓았듯이 서양문학의 초기 한글번역물이라는 점과 함께 삽화 42점이 수록되어 있다는 데 있다. 한글 번역물에 대해서는 그 의의와 번역의 계통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고, 삽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있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목판본 중에서 완질(2책)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예장한국교회기념관, 기독교문사, 범우사 등에 소장되어 있고, 결본으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울산대학교 도서관, 화봉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49] 이외에도 간행된 지 120년

44) 이 사실은 게일이 1895년 1월 5일에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일치한다. "My Dear Dr. Ellinwood." January 5, 1895. Gensan Korea (김인수 옮김,『게일목사의 선교편지』(서울: 쿰란, 2009) 원문221, 번역81, "the publication of which a considerable sum was subscribed by Pierson's Bible Class in Philadelphia."

45) 김동언, "『텬로력뎡』의 서지적 고찰,"『한남어문학』 제20집(1995. 4), 42.

46) 해외의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에도 완질 2책,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에는 결본 1책 등이 소장된 사실이 확인된다.

47) 박진영, "한국의 근대 번역 및 번안 소설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79.

48) 이러한 방식은 The Trilingual Press의 간행물에서 보이는 방식이다.

49) 현전하는 목판본 중에는 제73장의 좌면, 제75장의 좌면, 제76장의 좌면("진츙이 긔독도를 구원ᄒᆞ다."의 삽화) 등이 각각 제75장의 좌면, 제76장의 좌면, 제73장의 좌면 등에 잘못 편성된 판본이 있다. 이 사실은 전체 목판 중에는 최소한 3장 이상의 잘못 새긴 목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목판 중에는 제75장과 제77장

www.kci.go.kr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전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3.2 신활자본

지금까지 신활자본[50]의 존재에 대해서 일부 논급이 있었으나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다.[51] 그것은 국내에 전하는 신활자본이 적은 데다 내용 또한 목판본과 동일하기 때문에 출판이나 판본학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관심의 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활자본은 목판본과는 달리 영문표제지가 없고, 또 어디에도 간행년 외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간행 당시의 홍보내용이나 모리스 쿠랑의 『조선서지』에도 중국종이라

이 전하는데, 내용 순서가 맞는 목판이다. 그렇다면 잘못 새긴 목판들은 간행 초기에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0) 1책: 삽화, 사주쌍변, 반곽 21.7×16.2㎝, 유계, 반엽 18행33자, 상흑어미; 28.1×20.1㎝
권수제, 판심제: 『텬로력뎡』
원서명: Pilgrim's progress
간기: 구셰주강싱일쳔팔빅구십오년 대죠션긔국오빅스년을미
서: 구셰주강싱일쳔팔빅구십스년 원산셩회긔일셔

51) 신활자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일부 논급이 있었다. 곧 김동언은 "『텬로력뎡』의 서지적 고찰"(『한남어문학』 제20집(1995. 4), 44)에서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이 상해에서 간행한 신활자본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가졌으나 삽화가 없다는 점 때문에 더 이상의 규명은 하지 못하였다.
박효은은 "텬로력뎡 삽도로 읽는 구원의 길"(『기산 김준근의 기독교미술《텬로력뎡》삽도』. 재판.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016, 61)에서 "삽도만을 인쇄한 목판본이 1895년 발행당시부터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향후 판본연구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장문석은 "판식의 증언—『텬로력뎡』 번역과 19세기말 조선어문의 전통들"(『대동문화연구』 제78집(2012. 6), 131-173)에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신활자본을 목판본과 대비하면서 차이점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길"(『근대서지』 제10호(2014. 12), 583)에서는 신활자본에 삽화가 1장에 2점씩 배치되어 간행된 사실에 대해 조선의 인쇄기술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박진영이 "한국의 근대 번역 및 번안 소설사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80)에서 『천로역정』이 본격적인 근대 번역 및 번안 소설의 역사와 단절된 이유 중의 하나가 "연활자를 이용한 활판본이 아니라 판각본으로 출판된 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신활자본의 존재나 정체성이 학계에 보편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탓이라고 하겠다.

www.kci.go.kr

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 신활자본이 “게일이 가족과 함께 상해에 갔을 때 간행”하였다는 러트의 기록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그것은 신활자본이 19세기 말기 중국본의 형태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 주는데다 19세기 말기에 선교사들이 신활자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글 성서를 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이다.[52]

신활자본은 목판본과 동일한 한글표제지 1장, 서문 2장, 인명지명 설명 2장, 본문 67장 그리고 삽화 21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목판본과 동일하지만 삽화의 배치에서는 <표 1>과 같이 큰 차이를 보인다. 곧 목판본은 42점의 삽화를 내용에 맞추어 1장에 1점씩 모두 42장에 배치한데 비해 신활자본은 1장에 2점씩 모두 21장에 배치해 놓았다. 그래서 목판본과는 달리 내용과 삽화가 다소 어긋나는 곳이 제법 있다. 또 문자면은 장수가 표시된 동일한 크기의 사주쌍변의 판형인데 비해 삽화면은 장수 표시가 없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사주단변의 판형이다. 이러한 특징은 인쇄비용 절약이나 삽화인쇄의 기술부족 또는 문자와 삽화의 인쇄 시기의 차이 등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사형식의 읊은 글은 목판본이 상하에 여백을 두고 쌍행의 작은 자로 표현한데 비해 신활자본은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로 여백도 없이 이어 놓았다.

<표 1> 두 판본의 삽화 42점의 배치상태

구분	삽화의 한글 명칭	목판본	신활자본
1	긔독도가 던도의 게도롤 밧다	제2장 좌면	제1-2장 사이
2	긔독도가 집을 쩌나다	제4장 우면	
3	긔독도가 이천을 다리고 고집을 리별ᄒᆞ다	제6장 좌면	제2-3장 사이
4	긔독도가 우울니에 빠졋ᄂᆞᆫᄃᆡ 은조가 구원ᄒᆞ다	제9장 우면	
5	셰지가 긔독도를 쐬이다	제11장 좌면	제4-5장 사이
6	긔독도가 길을 일헛ᄂᆞᆫᄃᆡ 젼도가 다시 ᄀᆞᄅᆞ치다	제15장 좌면	
7	긔독도가 좁은문에 다다ᄅᆞ나 인ᄌᆞ가 열어주다	제21장 우면	제7-8장 사이

52) 신활자본『텬로력뎡』이전 또는 같은 해에 간행된 사례로는, 중국 심양에서 간행된『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1882) 등 로스(John Ross, 1842~1915) 번역의 낱권 한글성경들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간행된 이수정(1842~1887?) 번역의『신약마가전 복음서언해』(1885) 등이 있다.

www.kci.go.kr

구분	삽화의 한글 명칭	목판본	신활자본
8	인즈가 긔독도롤 텬셩길 ᄀᆞᄅᆞ치다	제23장 우면	
9	효시가 방쓰는ᄃᆡ 물 ᄲᅮ리는 리치로 긔독도를 ᄀᆞᄅᆞ치다	제27장 우면	제8-9장 사이
10	효시가 급ᄒᆞᆫ 욕심과 복을 기다리는 일로 긔독도를 ᄀᆞᄅᆞ치다	제29장 우면	
11	효시가 물로 불을 쓰고 기름으로 불을 닐게 홈으로 긔독도를 ᄀᆞᄅᆞ치다	제32장 우면	제11-12장 사이
12	긔독도 십즈가에 다다ᄅᆞ 죄짐을 벗ᄉᆞ니 텬ᄉᆞ가 흰옷술 닙히다	제38장 좌면	
13	긔독도가 담을 넘어오ᄂᆞᆫ 사ᄅᆞᆷ을 ᄀᆡ유ᄒᆞ다	제40장 좌면	제14-15장 사이
14	긔독도가 회의와 심경의 말을 듯지 안타	제45장 우면	
15	긔독도가 일헛든 표지롤 도로 차졋다	제47장 좌면	제15-16장 사이
16	긔독도가 ᄉᆞᄌᆞ잇ᄂᆞᆫ ᄃᆡ를 지나다	제48장 좌면	
17	긔독도가 미궁에 ᄃᆞ다ᄅᆞᆺ다	제52장 우면	제16-17장 사이
18	긔독도가 미궁에 드러가다	제55장 우면	
19	긔독도가 갑옷술 닙다	제60장 좌면	제20-21장 사이
20	긔독도가 아파륜과 싸호다	제63장 좌면	
21	긔독도가 악귀롤 만나 긔도ᄒᆞ다	제69장 좌면	제22-23장 사이
22	긔독도가 음예를 ᄯᅥ나니 히빗치 빗최다	제72장 우면	
23	긔독도가 텬쥬교황을 지나가다	제74장 좌면	제23-24장 사이
24	진츙이 긔독도를 구원ᄒᆞ다	제76장 좌면	
25	로아당이 진츙을 쐬이다	제85장 좌면	제26-27장 사이
26	평론촌	제91장 우면	
27	긔독도 친츙이 젼도를 다시 맛나다	제102장 좌면	제34-35장 사이
28	허화시	제105장 좌면	
29	긔독도 진츙이 허화시에셔 잡혀가다	제108장 우면	제35-36장 사이
30	진츙이 해를 밧다	제116장 좌면	
31	긔독도 미도가 라득의 쳐 소금 기동된 거술 보다	제129장 좌면	제43-44장 사이
32	싱명강	제133장 우면	
33	긔독도 미도가 졀망의 옥에 가치다	제137장 우면	제46-47장 사이
34	긔독도 미도 옥에셔 도망ᄒᆞ다	제143장 우면	
35	긔독도 미도 이단산에셔 ᄂᆞ려다보다	제146장 우면	제48-49장 사이
36	텬셩을 ᄇᆞ라보다	제149장 좌면	
37	무지롤 맛나다	제151장 우면	제53-54장 사이
38	광명ᄒᆞᆫ 사ᄅᆞᆷ이 긔독도와 미도롤 구믈에셔 구원ᄒᆞ다	제163장 우면	
39	미도가 미긔에셔 조을다	제167장 우면	제64-65장 사이
40	텬ᄉᆞ를 맛나다	제192장 좌면	
41	ᄉᆞ하를 건너다	제195장 우면	제65-66장 사이
42	텬국에 들어가다	제199장 우면	

www.kci.go.kr

한편 신활자본은 중국의 보급용 종이에 인쇄된 데다 장책상태도 단단하지 못한 탓에 원형대로 보존된 전본이 드물다. 국내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본과 해외의 프린스턴신학교 도서관과 UC Berkeley 동아시아도서관[53] 소장본을 살폈으나 프린스턴신학교 소장본을 제외하고는 개장되어 원형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현상을 대비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내외 신활자본의 현상

구분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UC Berkeley
상태	개장(4침)	개장(4침)	개장(4침)	개장(4침)	원형(5침)	개장(4침)
표지	원표지 위에 감청색, 암황색(이중)	능화문양 황색	앞은 원표지 배접, 뒤는 미황색	문양 없는 연황색 厚紙	원표지 (곰팡이 흔적)	문양 없는 갈색
내용	온전	제50-53장 결락(문자면)	온전	온전	온전	서문, 제66-67장 결락(문자면)
삽화	유	유	무	유	유	유
장서인 (등록인)	金良善藏書ㅣ家寶	京城帝國大學圖書章	基督敎博物館	延禧圖書館	APR 17 1967	

한편 신활자본 중에서 제2-3장 사이에 편성된 “긔독도가 이쳔을 다리고 고집을 리별ᄒᆞ다”와 “긔독도가 우울니에 빠졋ᄂᆞᆫᄃᆡ 은조가 구원ᄒᆞ다”는 삽화는 두 유형의 판식으로 간행되었다. 곧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소장본은 사주쌍변, UC Berkeley와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소장본은 사주단변이다. 그렇다면 이 삽화가 들어간 장은 최소한 두 개의 판형으로 인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3) UC Berkeley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은 마지막 삽도 2장의 순서가 도치되어 있는데, 보수 후 개장하면서 장수표시가 없는 삽도를 잘못 편철한 것이다.

www.kci.go.kr

4. 삽화와 판각방식

4.1 삽화가

『텬로력뎡』에 수록된 삽화를 그린 화가가 김준근이라는 사실은 러트가 "목판본과 금속활자본 두 판 모두 원산의 미술가인 김준근의 멋진 線畵가 실렸다."[54]는 글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김준근은 『텬로력뎡』을 간행하기 이전부터 원산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칼스(William Richard Carles)가 18개월간 조선에 체류하면서 보고 느낀 대로 기록한 『Life in Corea』에 수록되어 있는 30여점의 삽도는 "원산에 있던 조선 화가가 먹(흑갈색)으로 그린 묵화(수채화)를 재현"[55]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칼스는 1885년경에 원산을 방문하였으므로 이때 그림을 입수하였을 것이다. 이 조선 화가가 김준근일 가능성은 아주 짙으므로 그는 1885년경에 원산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캐번디시(Cavandish)가 1891년에 조선을 몇 주 여행한 기행서의 서문에서 "토속적인 스케치는 조선의 양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었다. 그 나라의 풍속과 습관을 그린 것이 흥미롭다."[56]고 하였다. 그런데 수록된 스케치는 오른쪽 윗부분에 한글 작품명을 쓰고 「箕山」이라는 낙관이 있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려준 조선 양반은 김준근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 책은 캐번디시가 서울, 원산, 창진, 갑산, 포천, 백두산 등을 여행한 기록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1891년에 김준근의 그림을

54) Richard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27.
"Both editions were illustrated with charming line-drawings by a Wŏnsan artist, Kim Chun'gŭn."

55) W. R. Carles(1848~1929), Life in Corea(London: Macmillan and Co., 1888), vi(preface).
"The illustrations are mostly reproductions of some paintings in sepia by a Corean artist at Gensan."

56) A. E. J. Cavendish,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London: George Philip & Son, 1894), 6.
"The native sketches were executed for me by a Korean gentleman, and are, I think, interesting as illustrations of the manners and customs of the country."

www.kci.go.kr

입수한 지역은 원산일 것이다. 이렇게 이 기록 역시 게일이 원산에 교회를 건립하던 1891년에 김준근이 원산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내의 전택부 역시 원산에 거주하던 김준근이 『텬로력뎡』의 삽화를 그린 사실을 당시 원산에 살았던 지인의 말을 통해 밝히고 있다.[57] 이렇게 김준근은 빠르면 1885년부터 원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풍속화를 그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원산에 거주한 사실은 그림의 畵記에서도 알 수 있다. 곧 그가 그린 풍속화에는 「箕山」이라는 號印과 함께 「元山港箕山」, 「朝鮮元山港金俊根」, 「朝鮮國元山港金俊根」, 「朝鮮吐元山港金俊根」[58] 등의 화기가 있는 것이다. 물론 원산 이외의 지역 명을 쓴 작품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혹 그가 부산 초량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의 기록도 있다.[59] 이 기록을 근거로 "『텬로력뎡』의 삽화를 제작한 1895년 이전에는 초량에서 활동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산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60]고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여러 기록에서 보듯이 1895년까지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내외국인의 기록과 원산이라는 화기 등을 보아 김준근은 게일이 본격적으로 『텬로력뎡』의 번역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원산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침 삽화가 필요하다고 판단[61]한 게일은 이미 원산에서 함께 활동하던 풍속화가[62] 김준근과 어떤 형식의 삽화를 그려 넣을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게 된 것이다.

---

57) 전택부(1915~2008), 『토박이 신앙산맥』 1: 한국 기독교회의 '사도행전' (서울: 홍성사, 2015), 138-140.

58) "吐"은 "國"의 古字이다.

59) Stewart Culin, 『Korean Gam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895), p. v (Preface).
"The illustrations are almost entirely by native artists. The Korean plates are faithful copies of part of a series of colored pictures made by Ki San, an artist in the little Korean village of Tcho-ryang, back of Fusan."

60) 정병모, "기산 김준근 풍속화의 국제성과 전통성," 『강좌미술사』 제26권 제2호(2006), 985.

61) 게일이 당시 참조했을 만한 영문본 중에서 삽화가 많이 수록된 판본으로는 신선영이 소개한 맥과이어 주석본(56점) 외에 1875년의 Elliot Stock사 간본(19점), 1890년의 Henry Altemus사 간본(58점) 등이 있다.

62) 김준근 등이 남긴 풍속화 중에서 『텬로력뎡』에 수록된 삽화뿐 아니라 「한국의 놀이」, 「刑政」

www.kci.go.kr

한편 그들이 언제까지 교유를 지속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토마스 피셔 희귀본 장서실」에 있는 게일의 미간행 유물이 발굴 공개되었다.[63] 그 중 『朝鮮筆景』(1912)에는 김준근의 풍속화 3점이 수록되어 있다.[64] 그렇다면 두 사람은 1912년 전후까지는 교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게일이 1922년에 간행한 『구운몽』에 수록된 삽화는 한 눈에 보아도 김준근의 화풍이 아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게일과 김준근의 교유는 이 시기에는 이미 단절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1927년에 게일은 조선을 떠난다. 이렇게 김준근은 원산에 거주하면서 같은 지역의 선교사인 게일의 『텬로력뎡』의 간행사업에 화가로서 도움을 주었고, 이후 두 사람은 최소한 1912년까지는 계속 교유하였던 것이다.

『텬로력뎡』에 수록된 삽화는 게일과의 협력으로 영문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65] 그러나 "전문가로서의 명망을 갖춘 미술가로서 그의 삽화는 조선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훌륭하다."[66]는 게일의 평가와 같이 그의 삽화는 이미 우리의 것으로 창작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삽화에 대해 "조선의 감성과 취향에 맞게 조선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회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67]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삽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비롯한 조선

등의 풍속화도 당시 유희와 형정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데 필수사료가 된다. 최은주, "기산 김준근 풍속화에 나타난 19세기말 일반복식과 놀이문화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놀이」 삽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4권 제5호(2012. 10), 768. 차인배, "19세기 刑政風俗圖에 나타난 형벌의 특징에 관한 고찰," 『역사민속학』 제44호(2014. 3), 177-214.

63) GALE, JAMES SCARTH PAPERS (MS/ Col/ 245)
권순긍, 한재표, 이상현의 "게일문서(Gale, James Scarth Papers) 소재 심청전, 토생전 영역본의 발굴과 의의"(『고소설연구』 제30집(2010), 425-426)에는 24상자의 유물에 대한 조사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64) 이상현, 윤설희, 이진숙, "『게일유고』 소재 한국고전 번역물(1)," 『열상고전연구』 제46집(2015. 8), 636-637.

65) 신선영, "김준근필 『텬로력뎡』 삽화 연구," 『동양학』 제47집(2010. 2), 198.

66) "My Dear Dr. Ellinwood." January 5, 1895. Gensan Korea (김인수 옮김, 『게일목사의 선교편지』 원문221, 번역81.
"The illustrations are very good from a native point of view as the artist is a noted character in his special line."

www.kci.go.kr

남녀의 여러 이미지는 한국적 기독교미술의 성립양상을 잘 보여주고"[68] 있다. 또 간행 당시 빈튼(C. C. Vinton)은 서평에서 "외국인이 아닌 조선인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선 그림의 훌륭함을 넘어선 예술품"[69]으로 보았다. 이렇게 김준근이 그린 『텬로력뎡』의 삽화는 뛰어난 인물묘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회화이자 이후 기독교미술의 성립에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4.2 판각방식

현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는 1895년에 간행한 『텬로력뎡』 목판 69매가 소장되어 있다.[70] 보존 상태는 마구리가 결실된 것이 있는 등 간행시기에 비해 그리 좋지 못한 편이다. 간행당시 목판이 몇 매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소장된 목판에서 보듯이, 양면 또는 한 면에 판각되어 있는 등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전하는 인본의 전체 장수와 대비하면 결실된 장은 추정해 낼 수 있다. 영문표제지를 제외한 목판본의 전체 장수는 214장(417면)[71]이다. 그러므로 현전

67) 정병모, "기산 김준근 풍속화의 국제성과 전통성," 『강좌미술사』 제26권 제2호(2006), 979.

68) 박효은, "『텬로력뎡』 삽도로 읽는 구원의 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팀, 『기산 김준근의 기독교미술《텬로력뎡》 삽도』, 재판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016), 59.

69) C. C. Vinton(1856~1936), "Literary Department" (『텬로력뎡』), 『The Korean Repository』 vol.Ⅲ: January-December, 1896 (Seoul: The Trilingual Press, 1896), 39.
"First, no doubt, to attract attention, although we come only now to speak of them, are the illustrations. Artistically they are fairly executed. Anatomically the figures far exceed in merit those of the Korean drawings. To those for whom they are intended they come with peculiar acceptance because they are meant to represent Koreans and not foreigners."

70)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개신교)분야 목록화 조사보고서: 천로역정목판』 (문화재청, 2015), 249-257.
"목판 69매는 부분적으로 흰색 곰팡이가 핀 목판이 15매(31, 43, 44, 67/68, 83/84, 90/92, 93/94, 104, 126, 134, 152, 153/154, 164, 171/172, 177), 마구리가 손상되거나 결실된 목판이 11매(41/42, 54/46, 65/66, 70/71, 125/126, 139, 173/174, 177/178, 180, 181/182, 190), 균열이 있는 목판이 13매(19/20, 62/64, 77/78, 114/115, 117/118, 135/136, 123/124, 153/154, 157, 180, 193/194, 196/197, 198/200), 나무에서 진이 나와 있는 목판 1매(76), 오자를 바로잡기 위해 매목한 목판 1매(187), 글씨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목판 1매(144) 등이다."

www.kci.go.kr

하는 목판 69매(면수로는 122.5면)는 전체의 29.3%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문자가 새겨진 목판이며, 아쉽게도 삽화가 새겨진 목판은 없다.

목판은 광곽 크기의 차이가 제법 드러나며, 목재 역시 손상된 흔적으로 보아 고급 수종은 아닌 것 같다. 무게는 가벼운 것은 0.94kg(144/145장), 무거운 것은 1.53kg(127/128장) 등이나 대개는 1.4kg 전후이다. 이들 목판은 앞뒤 양면에 판각된 것, 한 면에만 판각된 것 그리고 한 면에 판각된 것 중 반쪽(좌우 어느 한쪽 면) 등 세 종류가 있다. 이들을 판각형식으로 나누어 보면 <표 3>과 같다.[72]

<표 3>『텬로력뎡』 목판 69매의 판각방식[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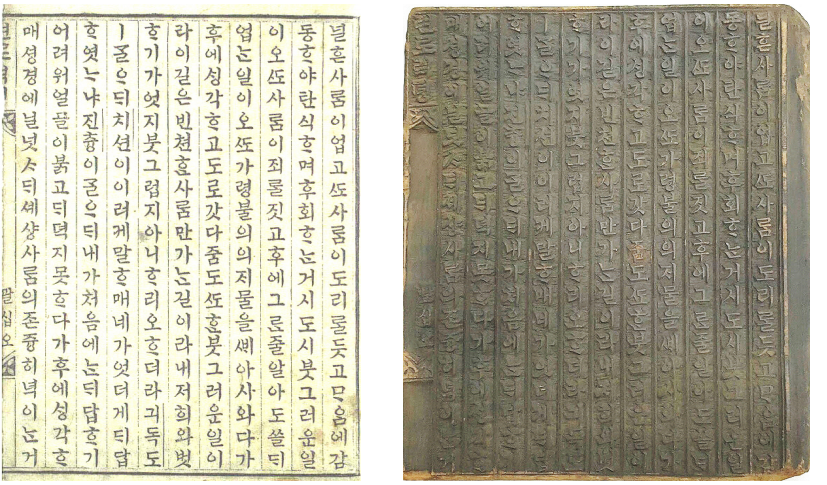
양면 판각	한 면 판각	한 면 판각 반쪽크기
19/20, 22/24, 25/26, 28/46, 30/31, 33/34, 35/36, 37/39, 41/42, 43/44, 49/50, 54/56, 57/58, 62/64, 65/66, 67/68, 70/71, 73/75, 77/78, 79/80, 83/84, 86/87, 88/89, 90/92, 93/94, 101/103, 104/106, 107/109, 114/115, 117/118, 119/120, 123/124, 125/126, 127/128, 130/131, 132/134, 135/136, 144/145, 150/152, 153/154, 157/158, 159/160, 164/165, 166/168, 169/170, 171/172, 173/174, 175/176, 177/178, 181/182, 183/184, 185/186, 187/190, 193/194, 196/197, 198/200	138, 139, 161, 179, 180, 188, 189, 191	55, 85, 129, 143, 149
56매	8매	5매

이 중에서 한 면에 판각된 목판은 대개 나누어 판각할 때 발생한다. 또 앞뒤 면이 순서대로 판각되지 않은 점도 현전하는 다른 목판에서 제법 발견되므로 이 목판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점은 단면으로 판각된 목판 중에는 <사진 1>과 같이 반쪽크기의 목판 5매가 있다는 점이다. 대개 우리나라의 목판은 앞뒤 양면이 판각되어 있고, 마구리가 양쪽에 끼워져 있는 모습이 전형이다. 그리고 앞뒤 각 면에는 선장본을 고려하여 좌우 두 면을 판각한다.

71) 한글표제지는 단면임.
72) 제144장과 제187장에는 오자를 바로 잡고자 매목을 해 놓았는데 제144장에 매목된 “비를” 이라는 작은 자는 현재 탈락되어 있다.
73) 아라비아 숫자는 장수를 나타냄.

www.kci.go.kr

그러므로 반쪽크기의 목판은 다른 서책의 목판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목판들은 좌우면 어느 쪽에 해당되던 간에 판심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로 크기는 전체 목판의 반보다 약간 길다. 판심에는 다른 장과 같이 내향3엽 화문어미의 윗부분에 『텬로력뎡』이라는 한글서명이 있고, 아래쪽 어미의 윗부분에는 해당 장의 장수가 한글로 새겨져 있다.



<사진 1> 오른쪽은 반쪽크기 목판(제85장)의 반전 화면, 왼쪽은 인본의 해당 면[74]

그렇다면 반쪽크기의 목판은 언제 어떤 목적에서 제작되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쪽크기 목판의 나머지 반을 볼 필요가 있다. 인본을 통해 살피니 5매 모두 삽화가 배치된 면이었다. 그런데 이 장들은 모두 문자면과 삽화면이 이어지는 곳의 테두리가 끊어진 흔적이 있고, 높낮이의 차이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개의 분리된 목판을 가까이 붙여두고 인쇄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삽화가 배치될 목판은 먼저 판심제와 장차가 포함된 판식을 판각한 다음, 목판을 절단한 뒤에 따로 삽화를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전하는

74) 목판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인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www.kci.go.kr

반쪽크기 목판의 절단면도 근자에 생긴 흔적이 아니므로 이를 입증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5장에 그치지 않고, 삽화가 배치된 모든 장에서 나타난다. 그 중에서 세 장의 사례를 보면 <사진 2>와 같다.

<사진 2> 테두리가 끊어진 흔적과 높낮이의 차이(제55, 21, 163장)

이와 같이 문자와 삽화가 함께 배치된 목판을 반으로 절단하여 판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신활자본에 삽화를 수록하기 위한 方策이다. 판심부분이 없는 반쪽크기의 목판은 크기가 작아서 휴대와 이동이 용이하다. 그런데 현전하는 신활자본 삽화 장의 인쇄상태는 문자 장과는 달리 짙음과 옅음의 차이가 있다. 대개는 진하게 인쇄된 것이 많은데 그 중의 일부는 뒷면까지 훤히 비쳐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짙음과 옅음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중국 현지에서 삽화 목판을 인쇄에 사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다른 하나는 삽화와 간행의 책임자인 김준근과 게일이 당시에 원산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75] 삽화는

75) "My Dear Dr. Ellinwood." January 5, 1895. Gensan Korea (김인수 옮김, 『게일목사의 선교편지』 원문221, 번역81.
"This last week I have been busy with a native artist preparing illustrations for 『Pilgrim's Progress』."

www.kci.go.kr

정밀하게 묘사되어야 하는 특성상 이들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행 일정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의 업무로 인해 원산에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결 언

『천로역정』은 이해하기 쉬운 한글표현과 문장구조를 바꾸어가며 지금까지 간행되고 있는 기독교의 고전문학이다. 『천로역정』의 첫 한글역본인 『텬로력뎡』은 선교사인 게일이 이창직 등의 도움을 받아 원본의 제1부를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게일은 많은 영문본과 중국역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 판본에 삽화를 수록할 계획을 세웠다. 마침 원산에 거주하던 풍속화가 김준근의 손을 빌려 42점의 삽화를 완성하고, 본문에 적절하게 배치한 다음 1895년에 간행하였다. 이것이 초판본인데, 서명은 『텬로력뎡』이었다.

당시는 우리의 전통적인 인쇄방식과 서양에서 전래된 인쇄방식이 병행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게일 등은 내외국인의 수요를 고려하여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류의 판본으로 간행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목판본은 서울에 있던 배재학당의 The Trilingual Press, 신활자본은 중국 상해의 인쇄소를 통해 이 일을 완수해 내었다. 지금까지 『텬로력뎡』의 여러 특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서지적 조사가 부족하다보니 한계를 보이는 점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동시에 간행된 두 판본의 정체성과 삽화를 판각한 방식 등 특이한 점들을 살피게 되었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본다.

첫째, 『텬로력뎡』은 1895년에 목판본과 신활자본 등 두 종류의 판본으로 조선성교서회에서 함께 발행되었다. 한지에 인쇄된 목판본은 우리의 전통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급형 중국종이에 인쇄된 신활자본 역시 당시 중국본의 특징을 보여준다. 두 판본의 존재에 대해서는 러트의 글, 『The Korean Repository』의 광고, 모리스 쿠랑의 『조선서지』 등에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

www.kci.go.kr

둘째, 목판본은 삽화 42점이 42장의 좌우 한 면에 배치되어 있고, 신활자로 찍은 영문표제지에는 게일부부의 번역으로 1895년 서울에서 간행된 사실이 밝혀져 있다. 또 당시의 광고에는 목판본은 삽도가 있는 최고수준의 조선 책이라며, 가격은 소매는 1달러, 도매는 90센트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목판본은 영문표제지가 있고, 또 판매를 위한 화폐단위로 볼 때 외국인을 주 수요층으로 간행된 판본이라고 하겠다.

셋째, 신활자본은 삽화는 1장에 2점씩, 모두 21장에 배치되어 있다. 이 신활자본에 대해 "작은 활자로 중국종이에 찍은 한 책", "상해에서 신식 중국종이에 찍은 책", "중국종이에 찍은 영어서명이 없는 별판"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현전하는 신활자본의 서지적인 특징과 일치한다. 또 신활자본은 판매를 위한 화폐단위를 캐시(전)로 표시해 놓았다. 그러므로 신활자본은 내국인을 주 수요층으로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이라고 하겠다.

넷째, 1895년에 간행된 목판 중에서 반쪽 크기의 목판 5매가 전한다. 문자가 새겨진 이 목판의 다른 반은 삽화부분이었다. 그런데 삽화가 배치된 장은 모두 삽화면과 문자면이 이어지는 곳의 테두리가 끊어져 있거나 높낮이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간행 당시에 삽화가 배치될 목판은 반으로 절단한 뒤에 따로 판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신활자본에 삽화를 수록하기 위한 방책이었거나 삽화판각을 검증할 김준근과 게일이 원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텬로력뎡』의 번역은 게일이 이창직의 도움을 받아 일을 완성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1910년에 간행된 2판(신활자본)부터는 이창직이 교열자로 등재되어 있다. 외국인이 번역한 우리말의 교열작업은 번역 이상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일이다. 또 그는 중국어역본도 참고하여 번역의 완성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삽화 역시 원산에 거주하던 김준근의 지원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텬로력뎡』은 게일 부부의 완성품이라기보다는 김준근과 이창직을 비롯한 조선인들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공동 합작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www.kci.go.kr

<참고문헌>

[원전 및 자료]

『텬로력뎡』. 목판본. 서울: [조선성교서회], 1895.

『텬로력뎡』. 신활자본. [상해]: [조선성교서회], 1895.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개신교)분야 목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5.

『기산 김준근의 기독교미술《텬로력뎡》삽도』. 재판.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016.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특별전 텬로력뎡』. 서울: 배재대학교, [2009].

『텬로력뎡: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연구집』 2. 서울: 동 박물관, 2010.

『The Korean Repository』. Vol.3 No.2-・3(February・-March), 1896. Advertisements.

[논문]

권순긍, 한재표, 이상현. “게일문서(Gale, James Scarth Papers) 소재 심청전, 토생전 영역본의 발굴과 의의.”『고소설연구』 제30집(2010).

권정은. “삽입시와 삽화를 통해 본『텬로력뎡』의 정체성.”『고전문학연구』 제45집(2014).

김동언. “「텬로력뎡」의 서지적 고찰.”『한남어문학』 제20집(1995. 4).

김동언. “텬로력뎡 초판본과 개화기 한국어.”『텬로력뎡: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연구집』 2(2010).

김동언. “텬로력뎡의 대본과 국어학적 특징.”『한국어학』 제29집(2005. 11).

김봉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의 韓國學 著述活動에 관한 硏究.”『서지학연구』 제3집(1988).

김성은. “선교사 게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1호(2009).

박진영. “한국의 근대 번역 및 번안 소설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박효은. “『텬로력뎡』 삽도로 읽는 구원의 길.”『텬로력뎡 삽도: 기산 김준근의 기독교미술』(2016).

凡外生. “獻身과 活動으로 一貫한 奇一博士의 生活과 業績.”『朝光』 제3권 4호

www.kci.go.kr

(1937. 4).
송민규. “『The Korean Repository』에 소개된 ODE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v.22(2013. 1).
신선영. “김준근필 『텬로력뎡』 삽화 연구.” 『동양학』 제47집(2010. 2).
신선영. “김준근이 그린 텬로력뎡 삽화의 도상적 연원.” 『텬로력뎡: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연구집』 2(2010).
안교성. “게일 목사의 신학사상의 특성과 그 유산.”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4집(2013).
오순방. “1894년 간 중문기독교소설의 전파와 번역 그리고 초기 한국의 문서선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喩道要旨』와 한역본 『인가귀도』를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제27집(2008).
유영익. “게일(James Scarth Gale)의 생애와 그의 선교 사업에 대한 연구.” 『캐나다 연구』 제2집(1990).
윤치호. “大博識家.” 『朝光』 제3권 4호(1937. 4).
이상현, 윤설희, 이진숙. “『게일유고』 소재 한국고전 번역물(1).” 『열상고전연구』 제46집(2015. 8).
이상현, 이진숙. “『朝鮮筆景』(Pen-picture of Old Korea, 1912) 소재 게일 영역 시조의 창작연원과 내지인의 관점.” 『우리文學硏究』 제44집(2014).
이진숙, 이상현. “『게일유고』 소재 한국고전 번역물(2).” 『열상고전연구』 제48집(2015. 12).
장문석. “천국에 이르는 길.” 『근대서지』 제10호(2014. 12).
장문석. “판식의 증언 – 『텬로력뎡』 번역과 19세기말 조선어문의 전통들.” 『대동문화연구』 78권(2012. 6).
정병모. “기산 김준근 풍속화의 국제성과 전통성.” 『강좌미술사』 제26권 제2호(2006).
정성은. “『텬로력뎡』 삽도의 시각이미지 연구: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문한 箕山 金俊根 작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2013.
차인배. “19세기 刑政風俗圖에 나타난 형벌의 특징에 관한 고찰.” 『역사민속학』

www.kci.go.kr

제44호(2014. 3).
최은주. “기산 김준근 풍속화에 나타난 19세기말 일반복식과 놀이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놀이」 삽화를 중심으로.”『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4권 제5호(2012. 10).
한규무. “게일(James S. Gale)의 한국 인식과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1898-1910년을 중심으로.”『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호(1995. 12).
한철호. “배재학당 삼문출판사와 개화기 문화.”『텬로력뎡: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연구집』 2(2010).

[단행본]

김병철.『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98.
이찬영.『북한교회사진명감』. 서울: 총회북한교회재건위원회, 2000.
이희재 역.『한국서지』. 서울: 일조각, 1997.
전택부.『토박이 신앙산맥』 1. 서울: 홍성사, 2015.
James Scarth Gale; 김인수 옮김.『게일목사의 선교편지』. 서울: 쿰란, 2009.
A. E. J. Cavendish.『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London: George Philip & Son, 1894.
James Scarth Gale.『Christian Literature for Korea』. [ ]: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89-].
James Scarth Gale.『Korea in Transition』. New York: Laymen Missionary Movement, 1909.
Maurice Courant.『Supplément à la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Imprimerie Nationale, E. Leroux, 1901.
Richard Rutt.『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Seoul: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1972.
W. R. Carles.『Life in Corea』. London: Macmillan and Co., 1888.

www.kci.go.kr